

■ [공통: 독서·문학]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① 09. ② 10. ③
 11. ① 12. ⑤ 13. ③ 14. ① 15. ② 16. ② 17. ③ 18. ② 19. ④ 20. ①
 21. ④ 22. ④ 23. ⑤ 24. ② 25. ② 26. ① 27. ① 28. ④ 29. ③ 30. ⑤
 31. ④ 32. ③ 33. ⑤ 34. ②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서 전략으로서의 밑줄 긋기’

지문해설 : 이 글은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밑줄 긋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밑줄 긋기는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주요한 정보를 추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밑줄이 너무 많거나 밑줄을 잘못 그으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밑줄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기,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다른 기호도 사용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제] 밑줄을 그으며 글을 읽는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기,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 사용하기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는 것은,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 것은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고 하였다. 또 3문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을 때에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2문단에서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면 독서의 흐름을 방해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하는 것은 밑줄 긋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반복된 어휘나 비슷한 문장마다 밑줄을 그으며 글을 읽으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 것은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학생이 밑줄 긋기를 한 사례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을 ‘독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문단의 ‘고래는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정보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한 주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포유동물’이라는 정보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로 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 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라는 정보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고래의 생김새’는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라고 할 수 있다. ④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라는 정보는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____'와 같은 밑줄 긋기가 추가되어야 한다.

[4~9] 독서

[4~9] 주제 통합, (가) 개항 이후 개화 개념의 변화 / (나) 중국의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

지문해설 : (가)는 개항 이후 주요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개화 개념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하던 개화는, 개항 이후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졌으며, 이후 유길준은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제]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개화 개념의 변화

지문해설 : (나)는 중국에서 아편 전쟁 이후의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 즉 과학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계승한 천두슈 등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통제되지 않은 과학의 역작용을 목도한 장쥘마이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주장하였다.

[주제]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대해 중국에서 제기된 다양한 관점

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 옌푸는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과학 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을사늑약 이후 박은식이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하였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으며,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장전마이는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고 하였다.

5.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에 나타난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통시적 흐름을 보이는 이 글의 논지 전개를 고려할 때, 『한성순보』는 3문단에 제시된 『대한매일신보』보다 앞선 시기에 발간된 신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성순보』는 1883년,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간되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으며,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3문단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는 개화 실행 주체를 왕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④ (가)의 3문단에서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갑신정변에서 사라졌으며,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되었다고 하였다.

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천두슈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장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하고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둘 다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천두슈는 신문화를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로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사상이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하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던 장전마이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옌푸는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옌푸의 입장은 천두슈에게 이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던 장전마이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에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 장전마이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 과학 및 과학의 방법을 이용한 신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 장전마이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은 박은식의 견해로, 박은식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은 것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이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은 천두슈의 견해로,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박은식은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박은식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④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로, 이들은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박은식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과학에서 초래된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

절하지 않다. ⑤ 박은식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에서는 A 마을 사람들이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즉 <보기>에서 정부의 홍보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에 공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는 마을의 경제 발전에 있으므로, 이 둘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 따르면, 박은식은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한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기>에서 젊은이들은 전통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겼는데, 박은식은 젊은이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④ (나)에 따르면,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옌푸는 <보기>에서와 같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 (나)에 따르면, 장전마이는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전마이는 <보기>의 마을에서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공상에 그칠’과 ‘16강에 그쳤다’의 ‘그치다’는 모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④, ⑤의 ‘그치다’는 모두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0~13] 독서

[10~13] 기술, '기계 학습과 확산 모델'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확산 모델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기본 발상이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한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한편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노이즈 이미지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잠재 표현을 구하여 노이즈를 예측하고, 이미지 연산기는 이 노이즈를 빼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러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주제] 기계 학습의 원리와 확산 모델

10.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이 글에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이즈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확산 모델을 구성하는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방법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확산 모델은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순확산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역확산 과정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노이즈 예측기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잠재 표현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의 노이즈 예측기가 노이즈를 예측하는 원리나 역확산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노이즈 생성기가 노이즈를 만든다고 하였다. 한편 4문단에서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미지 연산기가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빼서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을 통해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순확산 과정에서의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역확산 과정에서의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이즈 예측기는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다. ④ 3문단을 통해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 유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다고 하였다.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노이즈 예측기에 확산 이미지를 입력하면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에서 구한 잠재 표현에 따라 예측되는 노이즈도 달라질 것이다. ③ 2문단에서 확산 모델의 학습은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입력받은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는데, 이 수치들이 잠재 표현이다. 따라서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은 단계별로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구하는 잠재 표현은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의 확산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을 거쳐 ㉡의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것이다.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가)에 ㉠의 원본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것이다. ㉡ (나)에 ㉡의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을 것이다. ㉣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의 노이즈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것이다. ㉤ 역확산 과정에서 (나)에 ㉠의 확산 이미지가 출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에는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되어 노이즈 이미지나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14~17] 독서

[14-17] 사회,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

지문해설 : 이 글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본 리프킨의 입장과 관련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 문제를 제기하고,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 ID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나누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시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여러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자기 표현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 연기를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리프킨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아바타와 같이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 나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가상 공간에 익명성이 작동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익명성의 작동으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익명성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임을 나타낸다. ⑤ 2문단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런데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은 인터넷 ID는 단지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자기 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이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③ ㉠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 ④ ㉡에서는 인터넷 ID를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을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보는 입장은 ㉠이다. ⑤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본다는 것은 인터넷 ID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은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사용자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인터넷 ID를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에 대해 내린 결정의 다수 의견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터넷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인터넷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B는 a의 실명인 A를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의 입장에 따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A는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라고 언급했는데,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B임을 전시관의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의 입장에 따르면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실명을 거론한 경우든, 거론하지 않은 경우든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 입장에 따르면, B는 a의 실명을 밝혔으므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C의 댓글을 통해서는 a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 입장에 따르면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는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며, ㉣는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A는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라고 언급해 b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했으므로 ㉢의 입장에 따르면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의 입장에 따르면, A는 성명처럼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인터넷 ID를 언급하며 B를 모욕했으므로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는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B는 A라고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을 댓글에 제시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B는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실명을 적어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었으므로 ㉤도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⑤ C는 인터넷 ID인 a만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a가 누구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 ㉧는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ID가 성명과 같으므로 인터넷 ID인 a만 언급했다라도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표출(表出)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는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므로 '표출(表出)된다고'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완성(完城)되다’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다. 이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라는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② ‘요청(要請)하다’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 ‘기만(欺瞞)하다’는 ‘남을 속여 넘기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이 모르게 하다는 ④의 문맥적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 ⑤ ‘확충(擴充)되다’는 ‘늘어나고 넓어져서 충실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이버 폭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⑤의 문맥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

[18~21] 문학

[18-21] 고전소설 _ 작자 미상, ‘정을선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정을선과 여자 주인공 유추연이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정 내의 불화와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이다. 계모 노씨의 흉계로 추연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앞부분은 계모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정렬부인 조씨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한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룬 뒷부분은 쟁총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보인다. 악행을 저지르는 정렬부인 조씨를 돕는 보조 인물들과 주인공을 돕는 보조 인물들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 특징인데, 출제된 지문에서는 정렬부인 조씨의 모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총렬부인 유씨를 승상 정을선이 구해 내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가정 내 인물 간 대립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적 문제 해결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이미 아는 바’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은 승상이 호첩에게 저간의 상황을 묻고 얻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승상이 월매와 왕비, 옥졸로부터 얻은 정보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의 자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편지를 전해 받은 승상은 호첩에게 그 ‘연고’를 묻고는 집안에 변이 생겼음을 알고, 전장을 떠나 득달같이 집에 와서 왕비로부터 그동안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이미 아는 바’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총렬부인을 구한 승상이 왕비를 만나 ‘사연’을 듣고 나서 던진 물음이 ㉠이므로 승상이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승상의 물음 ㉠에 대해 왕비는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왕비의 사촌 오라비인 복록이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에 대한 왕비의 답변을 들은 승상은 복록을 찾았으나 복록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이미 죽어버렸다. 따라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19.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승상에게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아뢰는 금연의 말을 통해 누명을 씌운 인물인 정렬부인이 자신을 찾은 총렬부인에게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여 총렬부인을 침소로 보내어 마치 총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분을 통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누명을 씌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인 총렬부인을 자신의 침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복록이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 승상은 옥졸을 잡아들여 문초한 결과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임을 알게 된다.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초하는 과정을 곁에서 보고 있던 왕비는 총렬부인이 누명을 썼음을 뒤늦게 알고 양천통곡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인물은 누명을 썼던 인물인 총렬부인이 아니라 왕비라 할 수 있다. ② 승상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누명을 쓴 채로 옥에 갇힐 뻔하다가 가까스로 피신한 총렬부인을 구해 내고, 누명을 씻어 달라는 총렬부인의 말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승상은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인물이 정렬부인임을 알고 크게 노하고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황상께 아뢰고 있으므로 누명을 쓴 인물인 총렬부인의 요청으로 승상이 누명을 씌운 인물인 정렬부인의 처벌을 유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연이 자신을 국문하는 승상에게 털어놓은 사건의 진상은 금연이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가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달아나 마치 총렬부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다. 따라서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인 총렬부인이 승상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이지 총렬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전장을 떠나 급히 집으로 돌아온 승상은 금연을 국문하는 과정에서 총렬부인이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따라서 총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정렬부인의 시비인 금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일 때문이지 승상이 자신의 어머니인 왕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크게 놀란 원수는 집에 변고가 생겨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중군장에게 군을 인솔하여 돌아오라고 분부하면서 중군장에

게 군의 통솔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지문 뒷부분에 제시된 상소에 따르면 이미 승상이 서용을 쳐 사로잡았으므로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으로 돌아온 승상은, 왕비의 명령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해 낸 후 총렬부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녀에게 묻고 있다. ③ 승상의 문초를 받은 옥졸은 자신이 옥에서 죽은 이가 총렬부인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말을 하자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승상의 문초를 받은 옥졸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에게 옥중 시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부디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하면서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그 사실이 발설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옥졸은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금연을 잡아들여 직접 국문을 한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서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따라서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얼굴이 상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옥졸이 승상의 문초에 대답한 말에 따르면 옥졸은 옥중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한 옥졸의 이야기를 들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은 옥졸의 입단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옥중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니며 총렬부인은 이미 다른 데로 도망했음을 알 수 있다. 왕비의 시비 월매가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끝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총렬부인의 시비인 금섬처럼 죽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월매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인 왕비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상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그는 대원수로서 서용을 쳐 사로잡은 후에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하던 차에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집에 와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아뢰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정을선이 가정 안팎의 사건에 두루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전장을 떠나 집으로 온 승상 정을선은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해 내고 월매와 함께 총렬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구덩이에서 야기를 안고 있는 총렬부인을 구해 낸 승상은 ‘통곡’하고, 총렬부인은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참혹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승상과 부인의 모습은 인물의 감정과 고난이 극대화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자신이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왕비는 충렬부인의 수난이 일부다 처제에서 비롯한 문제가 아니라 정렬부인의 인성 문제에서 비롯하였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정렬부인은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상층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승상의 부인이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는 부분이므로,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7] 문학

[22-27] 현대시 - (가)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다)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지문해설 : (가)는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떠나보낸 후의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이 작품에서는 ‘배’와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에서마저 벗어나려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보듯이 ‘배’는 다시 밀려들어온다.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주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나)는 우리는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은 사랑과 슬픔의 반복이며,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에서 보듯이 이러한 삶의 여정은 자연스럽고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한 삶에서도 화자는 ‘당신’을 떠올리며 사랑의 ‘아름다움’에 기대어 남아 있는 삶을 살아내려 한다.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침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주제] 사랑의 기억에서 오는 고통과 위안

(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의 본질을 논파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수필에 의하면 사랑의 편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최후의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사랑의 편지에는 ‘들끓는 고백의 언어’만이 담겨 있다.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 즉 ‘그’의

‘또 다른 영혼’에 매료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은 지속될 수 없다. ‘편지 속의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주제] 사랑의 편지와 글쓰기의 본질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배’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당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그’와 대상인 ‘그녀’ 혹은 ‘편지 속의 그’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단풍’, ‘은행’ 등은 가을의 조락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의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도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는 ‘바닷물’, ‘허공’, (나)에서는 ‘단풍’, ‘은행’, ‘개망초’, ‘풀’, ‘흙’, ‘달’, ‘별’ 등의 자연물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는 ‘배를 민다’, ‘부드럽게 도’, (나)에서는 ‘킁킁거리며’, ‘킁킁 당신’ 등을 반복하거나 변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과 변주가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다)에서는 ‘편지 속의 그’를 ‘또 다른 영혼’으로 표현하는 등의 변주는 있지만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2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한껏 세계’ 배를 밀어내었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흙터’도 가라앉았다고 했다. 사랑하던 이를 힘겹게 떠나보낸 뒤 이별로 인한 심리적 상처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소 잠잠해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내 안으로’ 배가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온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환기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다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예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등의 시구는 이별하는 순간의 정서적 긴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랑’은 ‘되지도 않는 길’을 떠난다. 이는 이별에서 오는 막막한 심리적 정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는 것과 같이 이별

로 인한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려 한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생기고,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잠시 잤아 든 상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나’는 ‘마음의 무덤’에 ‘병자’처럼 별초하러 간다. 그러므로 ‘병자’는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치병’과 ‘환후’에 연결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나’는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의 기억으로 ‘당신’을 부른다. 그러므로 ‘당신’은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나’의 눈앞에 없지만 ‘이만큼 살아오의 상처에 기대’ 부름을 통해 환기되는 존재이다. ④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에서 보듯이 ‘당신’은 ‘나’가 버릴 수도,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적요로움의 울음’, ‘슬픔’, ‘상처’ 등과 함께 ‘사랑’, ‘아름다움’, ‘이쁜’ 등의 시어는 ‘당신’이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이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서술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의 일부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킁킁’은 웃음소리를 본뜬 시어이다. 이는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의성어이다.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이 이어져 있는 서술로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은 사랑의 기억, 상실의 고통 등의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마음의 무덤’은 사랑의 기억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서술로 볼 수 있다.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에 해당한다. ‘이쁜’, ‘참 좋지요’는 대상에 대해 사랑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6.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㉔는 ‘병을 다스림’과 ‘병’은 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병’은 사랑과 이별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상처, 아픔과 슬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병 자체가 낫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㉓, ㉔ 사랑의 편지는 상대를 향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등만이 있다. ㉕ ㉔는 ‘치병’과 ‘환후’가 서로 다르기에 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는 말이고, ㉖는 편지에 적는 사랑 고백 같은 것이 위선 또는 위약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㉔는 아픔을 겪는 이가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하는 이가 병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㉗ 또한 고백을 하는 이가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백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선 또는 위약을 행할 뿐일 것이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랑의 편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최후의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 ‘익명의 욕구’에 의해 처음에 품었던 현실적 목표를 잊어버리게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에서 ‘전언’은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혹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와 연관된다. 따라서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㉓ 사랑의 편지는 상대 즉 ‘그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에 ‘2인칭’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로 귀결된다.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 못하여,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㉔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편지 속의 그’이고, 이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다. 편지 속의 그 영혼은 그녀와 그를 매료시킨다. ㉕ ‘편지 속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로 실제의 자신과는 깊은 간극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기에 ‘그’는 ‘편지 속

의 그'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비루함을 실감하게 된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배꼽'과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배꼽 논쟁'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사회 상황에 대해 깊이 탐색한 작품이다.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인 '허원'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갑자기 배꼽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배꼽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배꼽은 존재의 근원을 드러내는 표상이자 생명이 시작된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 된다. 이러한 배꼽의 실종은 억압적인 현실의 고통 속에서 위로를 기대하는 '허원'에게 상실감과 고독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는 '허원'의 개인적인 일에 그치지 않는다.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배꼽' 문제가 범국민적인 문제로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허원'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사회 구성원을 향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주제] 비현실적인 경험을 통한 인간 소외와 고독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㉞은 '어느 해 여름이었다.'의 뒤에 '하니까'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라고 서술하며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㉟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허원'의 생각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은 '허원'의 생각을 '허원'의 목소리로 드러낸 것으로,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은 '허원'의 의식을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한 것이 아니다. ⑤ ㉢은 배꼽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갑자기 일반에까지 성행하게 된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비밀'은 '허원'의 배꼽이 없어진 비현실적인 경험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허원’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 채 혼자만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가 된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허원’은 결국 허망감에 빠져 끝없는 상념들을 쌓으며 심리적인 동요를 하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갑자기 배꼽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비밀’은 ‘허원’이 자신의 신념을 돌이켜 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비밀’이 이러한 서사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인물이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비밀’이 이러한 내용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기성의 질서에 저항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므로, ‘비밀’이 이를 나타내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3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허원’은 ‘실물’ 즉 배꼽에 대한 지식과 사념을 바탕으로 ‘배꼽론’을 발전시켜 ‘확고한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면서도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심상찮은 관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로 여기며 ‘기묘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허원’이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허원’은 갑자기 사라져 버린 자기 배꼽의 ‘실물’로 인해 ‘배꼽’에 대한 사념에 빠져들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존재’와 그 ‘근원’의 의미를 밝혀 나가고 있다. ② ‘허원’은 ‘실물’ 즉 성인의 배꼽이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고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허원’은 자신의 배꼽이 사라진 후 배꼽에 관한 ‘사념’을 통해 그 나름의 ‘배꼽론’을 만들어 감으로써 현실에서 느끼는 허망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허원’은 ‘배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심상찮은 관심’의 확실치 않은 원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점점 확산하는 배꼽에 관한 논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허원’이 배꼽론에 대해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된 것이라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식의 끈’이 ‘건드려’진다는 것은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지지 못하고 자꾸만 허전해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 주인공은 비정상적인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회사 출근’과 ‘늦잠 버릇’은 ‘허원’이 날마다 해 온 것이다. 그런데 배꼽이 없어진 이후 그는 ‘회사 출근’을 포기하고 ‘늦잠 버릇’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허원’은 ‘배꼽론’에서 ‘배꼽’을 ‘탯줄’과 연관하여, 우리 존재는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마침내 ‘우주’와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한 그의 생각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기묘한 현상’의 ‘기묘한’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뜻밖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현상’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갑민가’ / (나)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지문해설 : (가)는 창작 시기와 작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 영정조 때(18세기) 성대중이 함경도 북청 부사로 있을 무렵 근처 갑산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 시대에 삼수와 더불어 유명한 귀양지 중 하나였다. 기온이 낮고 지형이 험준하여 경작지가 많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신역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몰락 양반이나 힘없는 민중은 족징(族徵)과 지방 관리의 학정 등으로 신역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작품 속 갑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갑민과 생원이 라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 비판

(나)는 김천택이 엮은 <청구영언>에 수록된 사설시조로, 선행하는 화자(초장과 중장)와 목동들(종장) 사이의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화자는 앞내와 뒷내에서 잡아 다래끼에 넣으려는 물고기를 목동들이 소 궁둥이에 얹어 누군가에게 전해 주기를 바라는데, 화자의 기대와는 달리 목동들은 농사일 때문에 바빠 가는 길이라 전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하고 있다. (나)는 대화의 전개 양상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기대가 어긋나는 의외의 상황을 통해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희성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 ‘어데 간들 면할쏜가’, ‘이때 일을 모를쏘냐’, ‘석송인들 당할쏘냐’

등 의문의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어데 간들 면할쏘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고, ‘이때 일을 모를쏘냐’, ‘석송인들 당할쏘냐’는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 나타나는 의문의 표현은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 발이 뒤에 간다’에서 대구 표현으로 신역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초라한 외양과 불쌍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본토 군정 싫다 하고 /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 한 인심에 /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쏘냐’에서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도망을 가도 신분을 속이고 살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유사 장의 채지 나면 ~ 군사 강정 되단 말가’에서 갑민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 군사로 강등된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⑤ ‘한 몸 신역 삼 냥 오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중국 진나라 때의 부호인 석송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신역의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갑민이 얻으면 공채와 신역을 갚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화자가 갑민이 도망가지 않고 고향에 머무르면서 캐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은 화자가 잡아서 다래끼에 넣으려는 것으로, 목동들이 소 궁둥이에 얹어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즉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을 언급하는 것은 생원으로, 그는 ㉠을 언급하여 갑민의 이주를 만류하려는 것이지 자신이 이주하여 약재를 재배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을 언급하는 화자는 말을 건네는 상대인 목동들에게 물고기의 운반과 전달을 요청하는 것이지, 목동들에게 물고기를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은 갑민이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려는 대상이다. 둘 다 유흥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에서 생원이 ㉠을 획득하기 위해 갑민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에서 화자는 목동들의 도움 없이 ㉡을 획득할 수 있으며, 목동들에게 ㉡의 운반과 전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이내’ 말씀은 갑민이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대(생원)’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갑민은 갑산 지역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며 집안의 내력과 지위의 강등을 시간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그대’는 생원이고, ‘자네’는 갑민이다. 생원은 신역을 피해 도망가려는 갑민에게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권유를 하는데, 도망을 선택한 갑민은 당시 갑산 지역의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③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고기’를 소 궁둥이에 얹어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우리(목동들)’에게 요청하는데, 화자의 기대와 달리 목동들은 ‘고기’를 전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해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고기’를 전달받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보기>의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를 (가)와 (나)에 적용하면 (가)에서 ‘그대(생원)’가 길 가는 ‘자네(갑민)’를, (나)에서 선행하는 화자가 ‘아희들(목동들)’을 불러 말을 건네는 상황은 극 중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③ 38. ① 39. ② 40. ④ 41. ③ 42. ⑤ 43. ② 44. ①
45. ③

[35~39] 언어

[35~36]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의 표기 방식 차이

지문해설 : 이 글은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의 표기 방식 차이에 대해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팔종성가족용의 원리에 대해 세 문헌 모두에서 예외가 나타나며, 예외가 되는 표기가 문헌마다 달랐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2문단에서는 고유어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를 취하는 양상이 세 문헌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3문단에서는 사잇소리 표기, 4문단에서는 한자를 적는 방식이 세 문헌에서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5문단에서는 ‘봉’을 지니는 일부 단어의 표기 방식이 세 문헌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문헌에 나타난 표기 방식 차이

35. 중세 국어의 표기법

정답해설 :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마지막 문단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ᄒᆞᆫ사’의 형태로만 썼다고 설명하였고,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서는 ‘ᄒᆞ오사’로만 썼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 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설명한 팔종성가족용은 여덟 자음자(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높고’, ‘빛’처럼 ‘ㅍ’, ‘ㅊ’으로 끝소리를 적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② ‘오늘+날’에서 사잇소리가 쓰이는 자리는 울림소리 사이이다. 3문단을 통해서 ‘용비어천가’에서는 울림소리 사이에 사잇소리 표기로 ‘ㄷ’을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 ‘바닷물’의 사잇소리 ‘ㅅ’ 표기는 중세 국어의 사잇소리 표기 방식에서 유래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석보상절’에서는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다는 4문단의 설명을 통해 ‘天뎡’과 같이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는 설명을 통해 ‘뎡天’과 같이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36. 중세 국어의 표기법

정답해설 :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 대한 설명은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는 설명을 통해 ‘뽕+을’을 ‘부플’로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용비어천가’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 대해 이어 적기를 취했다는 설명을 통해 ‘ᄒᆞ+애’를 ‘ᄒᆞ애’로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석보상절’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대해 이어 적기를 취했다는 설명을 통해 ‘담+--아’를 ‘다마’로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경우에는 끊어 적기를 취했다는 설명을 통해 ‘눈+에’를 ‘눈에’로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석보상절’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ㅇ’일 때에는 이어 적기도 하고 끊어 적기도 하였다는 설명을 통해 ‘스승+이’를 ‘스스이’나 ‘스승이’로 적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37. 단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에서 ‘종소리를 듣다’의 ‘듣다’는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이고, ‘잔소리로 듣다’의 ‘듣다’는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이 둘은 다의어 관계이다. 그런데 전자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후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다의어 관계이지만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쓰인 ‘불’은 각각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과 ‘불이 타는 듯이 열렬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정열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를 지니며, 이 둘은 다의어 관계이다. ② ㉡에서 ‘가위 표를 치다’의 ‘치다’는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의 뜻을 지니며, ‘구슬을 치다’의 ‘치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의 뜻을 지닌다. 이 둘은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④ ㉢에서 ‘얽은 화장’의 ‘얽다’는 ‘빛깔이 진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이고, ‘얽은 잠’의 ‘얽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깊지 아니하고 가볍다.’라는 의미로, 이 둘은 다의어 관계이다. 그러나 전자의 반의어는 ‘질다’, 후자의 반의어는 ‘깊다’로, 이 둘은 반의어가 같은 경우가 아니다. ⑤ ㉣에서 ‘봄이 오다’의 ‘오다’는 ‘계절 따위가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다.’라는 의미이고, ‘노력에서 오다’의 ‘오다’는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다.’의 의미로, 이 둘은 다의어 관계이다. 그런데 전자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후자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에서는 ‘ㅅ → ㄷ(덧 → 덜)’, ‘ㅎ → ㄷ(쌀 → 째)’, ‘ㄷ → ㄴ(쌀 → 째)’의 자음 교체가 확인된다. ‘ㅅ(치조음, 마찰음) → ㄷ(치조음, 파열음)’, ‘ㄷ(치조음, 파열음) → ㄴ(치조음, 비음)’은 조음 방법만 변한 경우이고, ‘ㅎ(후음, 마찰음) → ㄷ(치조음, 파열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한 경우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ㄱ → ㅇ’, ‘ㄹ → ㄴ’, ‘ㄷ → ㅌ’의 자음 교체가 확인된다. ‘ㄱ → ㅇ’, ‘ㄹ → ㄴ’은 조음 방법만 변한 경우이고, ‘ㄷ → 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경우(평음 → 경음의 변화는 있음.)이다. ③ ㉡에서는 ‘ㅍ → ㅍ’, ‘ㄱ → ㄱ’의 자음 교체가 확인된다. ‘ㅍ → ㅍ’은 조음 방법만 변한 경우이고, ‘ㄱ → ㄱ’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경우(평음 → 경음의 변화는 있음.)이다. ④ ㉢에서는 ‘ㅌ → ㄷ’, ‘ㅅ → ㄷ’, ‘ㄷ → ㄴ’의 자음 교체가 확인된다. ‘ㅌ → ㄷ’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경우이고, ‘ㅅ → ㄷ’, ‘ㄷ → ㄴ’은 조음 방법만 변한 경우이다. ⑤ ㉣에서는 ‘ㅈ → ㄷ’, ‘ㅊ → ㅊ’, ‘ㅌ → ㅊ’의 자음 교체가 확인된다. ‘ㅈ → ㄷ’, ‘ㅌ → ㅊ’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한 경우이고, ‘ㅊ → ㅊ’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경우(평음 → 경음의 변화는 있음.)이다.

39. 인용 표현

정답해설 : 그가 “청소를 같이 해요.”라고 발화하였다면 ㉠과 같이 ‘청소를 같이 하자고’로 간접 인용될 수 있다.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는 간접 인용의 과정에서 한 가지로 한정되며 청유형에서는 ‘하자고’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제’는 어제의 전날이다. 그가 그제에 “모래는 청소를 같이 하자.”라고 발화하였다면 ㉠과 같이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로 간접 인용될 수 있다. ③ ㉠의 ‘자기’는 ‘김 선생’을 가리킨다. 원래의 발화는 “나도 시를 좋아한다.” 정도일 것이며, ‘나’의 자리에 2인칭 주어가 오면 ㉠과 같이 간접 인용될 수 없다. ④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는 간접 인용의 과정에서 한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원래의 발화가 “나도 시를 좋아합니다.”이었어도 ㉠과 같이 ‘시를 좋아한다고’로 간접 인용될 수 있다. ⑤ 원래의 발화가 “내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어?”처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졌어도 ㉡과 같이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로 간접 인용될 수 있다.

[40~43] 매체

[40~43]

40.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의 화면에서는 화면을 이등분하여 좌측에는 출연자가 설명하는 영상이, 우측에는 출연자가 준비한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을 보여 주는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시간 방송의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분할된 화면이 제시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푸근’은 첫 번째 발화에서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채널 이름과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제시된 ㉠은 실시간 방송 채널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다. ② 방송에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를 묻는 ‘푸근’의 질문에 ‘전선’이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이 화면 하단인 ㉢에 자막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푸근’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면의 우측인 ㉡에 실시간 대화창이 보이도록 제시되어 있다. ⑤ ‘푸근’의 마지막 발화에서 “지환아빠 님, 방금 올리신 질문과 관련된 자료는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로 대신할게요.”라고 말한 후, ㉢과 같이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 주소를 제시하여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41.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B]에서 ‘풍경’은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국제 표준 규격 제정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하고 있지 않으며, ‘플러그와 콘서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가을비’는 ‘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라고 하며 자신의 여행 경험을 언급하면서,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번거롭다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 ‘아침’은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언급하면서,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④ [C]에서 ‘눈썹달’은 ‘220V로 전압을 높이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며 220V로 승압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220V로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⑤ [C]에서 ‘해맑음’은 ‘1991년쯤, 저희 집 콘센트를 220V용으로 바꾼 기억이 나요.’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A형에서 C형이나 F형으로 바뀐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나)의 작성자는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가 아니라 ‘국제 표준 규격이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하며, 그 사례로 찾은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단에 첨부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1. A열 용지의 비율’과 ‘2.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 제정과 그 이유’라는 소제목을 사용하여 항목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글의 처음 부분에서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인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 이름을 기울임 글자로 제시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③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이미지를 제시하여 A0부터 A4까지의 용지 비율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기’ 영상 56화의 ‘1분 5초’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㉞에서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함’과 ‘플러그와 콘센트의 오량이 다양해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 ‘-다 보다’와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니’가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㉞에 쓰인 ‘-다가’는 어떤 동작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동작이 나타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다.’에서처럼 ‘-다가’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㉞의 ‘-다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㉞에서 ‘일본에서 휴대 전화 충전에 어려움을 겪은 일’의 조건은 ‘현지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음’이다. ③ ㉞의 발화가 승압 사업에 대한 부담이 큼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㉞에는 이중 부정이 쓰이지 않았다. ④ ㉞에 쓰인 ‘-네’는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㉞에서는 앞선 발화의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내용을 ‘처음 알았음’을 서술하고 있다. ⑤ ㉞의 보조 용언 구성 ‘-어 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며, 주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일 때 쓰인다. 또한, ㉞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물론, ‘그 사실은 아이도 알겠다.’에서와 같이 ‘-겠-’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㉞에 쓰인 ‘-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㉞에는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고, 올려놓은 결과를 유지하겠다는 주체의 의지가 담겨 있다.

[44~45] 매체

[44~45]

44.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는 좌측(앞면) 상단에 ‘참별빛제 일정 안내’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어, 각 행사가 언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행사별 진행 절차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우측(뒷면) 하단에 ‘유의 사항 안내’를 표로 제시하여 행사별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③ 우측(뒷면) 상단의 ‘동아리 부스 행사 안내’에서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좌측(앞면) 하단의 ‘행사별 장소 안내’에서 각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의 기호인 ‘☞’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⑤ 우측(뒷면) 상단의 ‘동아리 부스 행사 안내’에서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를 안내하고 있다.

45.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토론 한마당’과 관련하여 ‘승윤’은 ‘진출한 팀을 알려 주면 관전을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혜린’은 ‘관전하러 온 애들이 많으면 본선에 진출한 애들도 좋아할 거’라면서 본선 대진표를 올려 두자고 제안하였다. 두 사람의 대화를 반영하여 본선에서 겨루는 팀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진표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본선 진출 팀의 요청 사항에 따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세계 음식 체험’과 관련하여 ‘종우’는 ‘음식 이미지를 보여 주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혜린’은 ‘음식 설명까지 해 주면 어떤 음식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음식 정보 제공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식 이미지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② ‘세계 음식 체험’과 관련하여 ‘승윤’은 ‘조리법 파일을 올려서 애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경’은 ‘작년 체험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게시판에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 올려져 있다. ④ ‘토론 한마당’과 관련하여 ‘나경’은 ‘우승 팀 예상 투표’를 진행하면 ‘토론을 많이 보러 올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근수’는 ‘나경’의 의견에 찬성하며 ‘자기가 투표한 팀이 우승하는지 보러 많이 올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사람 모두 본선 관전 유도 방안과 관련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상 우승 팀에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⑤ ‘댄스 공연’과 관련하여 ‘근수’는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지 팀별 연습 영상을 올리면 애들이 좋아할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우’는 ‘팀 소개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영상 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면,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팀별 소개 영상 모음’과 ‘팀별 연습 영상 모음’ 영상이 올려져 있다.